

광주시, LA 클린에너지 조성사업 참여

투자유치 美 방문 강운태시장-레이먼드 쉐 합이 1800억 매출 공장 유치 등 5건 양해각서 체결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강운태 광주시장은 로스앤젤레스시(LA)가 현재 추진중인 1억2000만달러 규모의 '클린에너지 도시 조성 프로젝트'에 광주시가 직접 참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7일(현지시각) LA의 건축허가와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DBS(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ety)를 방문, 최고 책임자인 레이먼드 쉐와 수도전력국장 등 최고위급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날 합의 과정에서 강 시장은 광

주 LED제품들에 대한 시연 및 설명회를 갖고 세계 최고수준의 광주 LED제품들이 LA전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레이먼드 쉐는 "LA지역 공공기관에 광주의 LED제품을 설치하기 위해선 성능테스트를 거쳐 판매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발보드 투광기를 비롯한 광주LED제품이 이른 시일 내에 LA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레이먼드 쉐는 특히 "현재 LA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지원받은 6000만 달러와 자체적으로 마련한 6000만 달러

등 총 1억2000만 달러를 투입, LA전체를 '클린에너지 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라며 LED산업이 특화된 광주가 LA의 클린에너지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현재 LA는 대형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며, LA컨벤션센터를 비롯해 2조원 규모의 미식축구구장 건설과 LAX 공항 확장, 초고층 호텔 및 타워 건설 사업이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건물 전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33%를 재생가능한 클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LA가 추진하는 '클린에너지 도시 조성사업'에는 GM과 파나소닉, 오라클, 에디슨 등 세계 최고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강운태 시장은 "광주시가 LA의 클린에너지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며 "광주 LED제품은 세계 최고수준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미국 판매 준비를 마무리해 '메이드인 광주(Made in Kwangju) LED의 상품성과 경쟁력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미국 클라이드워트 니사와 MOU를 체결, 매년 1800억원 대의 매출이 예상되는 헬스기구 리폼(Reform)공장을 광주에 유치하기로 하는 등 모두 5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강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현지시각)에는 오스카상 수상장소로 유명한 코다극장과 세계 최대규모의 워너브라더스 영화촬영세트장, 비버리호스텔 등에 사용되는 기존 조명 등을 광주에서 생산된 LED제품으로 교체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4·27 화순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홍이식 군수가 28일 화순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화합의 정치'를 다짐하고 있다. 오른쪽 위 원내는 취임 선서 모습.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kwangju.co.kr

“지역 통합 이끌어 달라”

‘집안싸움’ 끝낸 화순주민들 취임 홍이식 군수에 당부

부부군수, 형제군수로 이어진 10여년 ‘집안 싸움’에 종지부를 찍은 화순 주민들은 28일 취임한 홍이식(53) 신임 군수에게 “지역 통합을 이끌어 달라”고 신신 당부했다.

부부군수인 무소속 안호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민주당의 홍이식 군수는 이날 오전 화순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화합의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홍 군수는 이를 위해 전임 군수와 4·27 재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군정을 협의하고 당시 거론된 공약들을 검토

해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합의 정치와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 다문화체험센터 건립, 임대 아파트·단독주택 전세금 이자 지원, 고교생 수업료 지원 등 복지정책의 강화를 통한 ‘잘사는 화순’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두 집안간의 극한 대결로 인해 지역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는데 대해 염증을 보였던 지역민들의 홍 군수 취임에 거는 기대도 컸다.

화순군의회 이 선 부의장은 “민심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의회와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달라”며 “군민의 삶의 질을 확충하고 파

한 선심성 복지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펴달라”고 당부했다.

집안 싸움으로 빚어진 편 가르기, 줄세우기 등으로 상처입은 화순군 공무원들도 새 출발을 다짐했다.

공무원 김모씨는 “일부에서 선거 때만 되면 특정 후보에 줄 서기를 하는 등 공무원들까지 편이 나뉘어 불행한 자초했다”며 “주민들의 바람대로 공무원들이 먼저 중립을 지키고 깨끗한 풍토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출발점이 되지 바란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kwangju.co.kr

“여수엑스포 성공개최 전남발전 좌우할 것”

광양·여수 도민과의 대화 나선 박준영 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8일 “민·관·산·학이 하나로 뭉쳐야 지역 발전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좋은 여건을 잘 살려 도시를 조화롭게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날 광양시청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갖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노사 평화 여부가 성패를 가른다”며 “지자체와 의회·시민이 소통하며 서로의 약점을 바로 잡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박 지사는 또 “광양은 1·2차 산업기반이 고루 갖춰져 여러가지 방향으로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정 목표를 한단계 끌어올려 미래 산업 경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광양매실의 경우 세계적인 명품이 됐듯이 농업분야에서도 친환경 먹거리 산업은 막대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우선 국내에서 고급식단 시장이 형성된 수도권 공략과 함께 중국 일본 등 진출에 전략을 수립·지원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특히 “현재 원유 배럴당 가격이 100달러를 넘어 향후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광양 내 산업연구 기

반을 토대로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통해 백운산 주변에 친환경 에너지 농장과 은파타운 등 명품 마을을 만들면 인구 유입에도 큰 효과를 얻을 것이다”며 “이를 토대로 삼진강부터 이어진 광양반도의 해양자원을 특화한다면 내륙 관광 수요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박 지사는 이날 오후 여수시 방문해 도민들과 만나 “내년으로 다가온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와 박람회장 향후 활용방안 등이 전남 지역 발전을 좌우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전남도, 여수

시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람회 이후 여수는 세계적인 중심지가 되지만 아직 마리아나 시설 등이 마련되지 않아 아쉽다”며 “여수 요트회사 설립을 비롯해 소호 앞바다부터 통합양식장의 어업권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양·여수시민들은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서 ‘광양~시모노세키’간 카페리호 운항 및 불강면 토종별 남종봉아부페병 피해지원, 수산물특화시장 광고탑 설치,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권 위임 등을 건의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국민권익위 오늘 광주서 ‘지방의원 행동강령’ 세미나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에 대한 세미나가 29일 광주에서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오후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시행 및 지방의회 의원 윤리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한국거버넌스학회 주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영주 동신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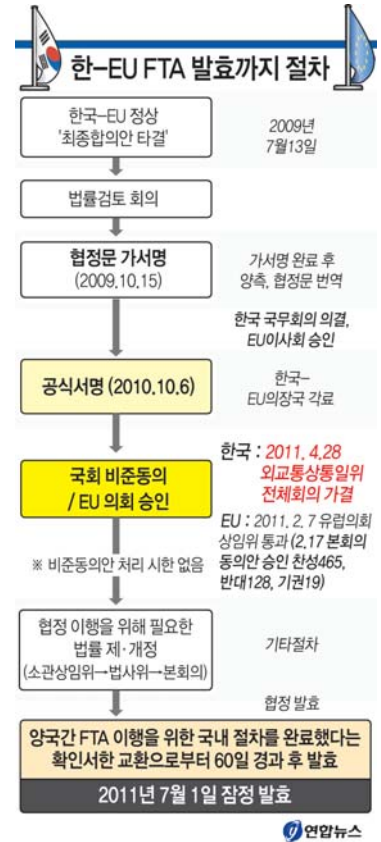
찰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의원의 윤리성 제고방안을, 라영재 협성대 교수가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이상봉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장과 이준근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전진숙 광주 북구의회 의원, 백운선 호남대 교수, 임승호 광주시민단

체합의회 정책위원장, 정재현 광주일보 논설위원 등이 지정토론을 벌인다.

한편, 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이나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지난 2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EU FTA 비준안 외통위 통과

與 표결 강행·민주 반발 본회의 보이콧

국회 외교교통상통일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5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으로부터 한·EU FTA 발효에 따른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지원대책을 보고받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한·EU FTA 발효에 따라 유럽 축산물이 수입돼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 대책이 미흡하다며 철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한 상

태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서 “4월 국회는 너무 빠르다”고 처리시점 연기를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한·EU FTA 후속대책에 대해 충분히 들은 데다 오는 7월1일 발효되는 만큼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통위에서 한·EU FTA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비준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비준동의안 표결 처리에 반발, 이날 오후에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결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롭게 도약하는 양해도 신안군 신청사

광주일보 창사 59주년을 축하합니다

무안·신안 국회의원	이윤석
신안군	
전남도의회 의원	임흥빈, 박충기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연수
목포·무안·신안축협	조합장 나상옥
신안군수협	조합장 주영문
신안군산림조합	조합장 황권순
한국전력공사신안지점	지점장 김영의
재단법인 1004섬 신안장학회	이사장 강춘산
재단법인 천사(1004)의 섬 신안복지재단	이사장 오홍재, 외 임직원 일동
새마을운동신안군지회	회원 일동
신안·목포·영광새어민회	회장 김인석
(주)신안새우젓	대표이사 박봉언
신안섬초조합공동법인	대표이사 권강배